

# Biweekly Tex+Fa Brief

\* 한국섬유산업연합회에서는 격주로 섬유패션산업과 관련된 주요 이슈와 업계 및 해외시장 동향, 주요 통계 자료 등을 정리하여 “Biweekly Tex+Fa Brief” 서비스로 제공합니다.

## ◆ 주요 이슈

### ☞ 정부, 수출 촉진을 위한 민관합동회의 개최

- 산업부는 지난 8월 12일(수)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수출기업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윤상직 장관 주재 '수출 촉진을 위한 민관합동 회의'를 개최. 정부는 하반기 수출 확대를 위해 중국, 베트남, 뉴질랜드와의 FTA가 조속히 국회 비준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이란·쿠바·러시아 시장을 중점 개척하기 위해 민관 합동 경제공동위 개최, 전시회 참가 등을 중점 지원키로 함. 아울러, 수출기업에 대한 무역금융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힘. 동 회의에서 섬산련 윤수영 부회장은 섬유류 수출 확대를 위한 전시마케팅의 중요성을 강조, 올 9월 2일(수) 개최되는 '2015 대한민국 섬유교역전(프리뷰 인 서울 2015) 전시회 활동계획을 설명하고, 중국 내수시장 진출 확대를 위해 하반기 민간 주도로 진행되고 있는 '프리뷰 인 차이나 F/W' 전시회(10.13~15)의 추경예산 지원을 정부에 요청

### ☞ EU, 베트남과 자유무역협정 체결 합의

- EU 집행위는 8월 4일(화) 홈페이지 성명을 통해 지난 2년 반 동안 협상을 진행한 EU-베트남 FTA가 사실상 합의됐다고 밝힘. 이번 합의에 따르면 베트남 측은 10년 안에 99% 이상 품목의 관세를 철폐하고, EU 측은 7년 안에 같은 품목의 관세를 철폐할 계획. 향후 양국간 FTA 협정문 작성, 정식서명, 의회비준 등을 거쳐 FTA 발효 예상 시기는 '17년 말 또는 '18년 초가 될 것으로 전망. 원산지 기준의 경우 원칙적으로 Fabric forward 기준이 적용됨. 하지만, 예외적으로 한국 등 EU의 FTA 체결국에서 생산된 원단에 대해서는 원산지가 인정되어 향후 한국산 원단의 對베트남 수출 확대가 기대됨. 한편, 베트남의 '14년 섬유류 수출액은 약 210억불로 EU 수출비중은 16%(34억불)이며, 이외에 미국 49%, 일본 13%, 한국 8%, 기타국가가 17%를 차지함

### ☞ 2015 대한민국 섬유교역전(Preview In Seoul 2015) 9월 2일 개막

- 9월 2일(수)부터 9월 4일(금)까지 서울 코엑스 1층 A홀에서 열리는 '프리뷰 인 서울 2015' 전시회가 302개사, 517부스 규모로 개최. 이번 전시회에는 세계 섬유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춘 차별화된 친환경, 기능성, 특허소재 등 다양한 아이템이 전시되며, 비즈니스 교류회, 참가업체-바이어간 1:1 매칭 상담회, 기업탐방 프로그램 운영 등 비즈니스 성과 확대를 위한 연계행사가 개최. 아울러, 신소재, 트렌드, 마케팅 등 다양한 전문가 초청 세미나 프로그램도 진행됨

### <참고> '프리뷰 인 서울 2015' 전시회 세미나 프로그램(안)

일자	장소	시간	세미나명 (수행기관)
9/2 (수)	COEX 307호	10:00~12:00	Nylon 66 신기능성 소재 설명회 (엘앤제이코리아)
		14:00~16:00	중국 TOP 브랜드 CEO 초청 설명회 (한국섬유산업연합회)
	308호	10:00~12:00	섬유산업 신문화 창조기업 신제품 발표회 (한국섬유개발연구원)
		13:30~15:00	'16 S/S City Active Trend Seminar (PFIN)
		15:30~18:00	안전보호 융복합 제품 기술 세미나 (한국섬유산업연합회/한국니트산업연구원)
9/3 (목)	307호	10:00~12:00	유럽 패션 & 패브릭 트렌드 및 시장정보 세미나 (메세프랑크푸르트프랑스)
		14:00~17:00	ICT 융합 섬유제품 기술 및 시장동향 세미나 (한국섬유산업연합회/한국섬유수출입조합)
	308호	10:00~12:30	섬유류 원산지검증 대응 설명회 (한국섬유산업연합회)
		13:00~19:00	R&D 섬유분야 성과 및 우수사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 ◆ 업계 동향

### ☞ 올 겨울 아웃도어 다운제품 물량 보합 내지 소폭 증가

- 당초 20~30% 수준의 물량 축소가 예상되었던 다운제품 출하가 보합 내지 소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 일부 브랜드는 전년대비 30~40% 생산을 늘렸으며, 선두권 브랜드들도 대부분 전년과 비슷한 물량을 책정한 것으로 알려짐. 이는 올 겨울이 예년에 비해 추울 것이라는 예보에 대한 기대심리와 상반기 매출 부진, 다운 원자재 가격 하락에 따른 생산원가 하락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 브랜드 별로는 '아이더'가 지난해보다 5만장 늘어난 68만장, 에프앤에프의 '디스커버리'는 8만장 늘어난 28만장을 책정했으며, 최근 공격적인 영업을 펼치고 있는 LF의 '라푸마'도 40% 늘린 28만장의 제품 출시를 계획. '네파'는 55만장, '블랙야크'는 40만장, '밀레'는 37만장으로 전년 수준을 유지

### ☞ 패션업체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골프웨어에 집중

- 매년 두 자리수 이상 높은 성장세를 보이던 아웃도어 시장이 최근 부진한 가운데, 패션업체들이 새로운 골프웨어 브랜드를 잇따라 론칭. K2가 작년 9월 와일드앵글을, 패션그룹형지가 올 3월 까스텔바작을 선보였으며, 세정그룹은 자사 유통채널인 웰메이드 매장 내 헤리티지 골프를 입점시켰고, 밀레와 데상트도 골프웨어 라인을 출시함. 골프웨어 업체들의 올 추동 물량도 전년대비 10~20% 정도 늘어난 것으로 알려짐. 한편, 한국패션산업연구원 패션시장규모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 골프웨어 기업 매출액(자본금 100억원 이상)은 1조2천억원으로 전년대비 기업평균 매출 신장률은 12.4%를 기록해 아웃도어 기업의 매출 신장률 5.5%를 크게 앞선 것으로 나타남

## ◆ 해외시장 동향

### ☞ '15년 상반기 중국 섬유산업 동향

- 중국방직공업연합회에 따르면, '15년 상반기 중국 섬유류 수출은 전기동기대비 3.1% 감소한 1,284억불을 기록. 국가별 수출의 경우, 對EU 수출은 8.9% 감소한 238억불, 미국은 8.8% 증가한 212억불, ASEAN은 1.4% 증가한 169억불, 중동은 5.1% 증가한 109억불, 일본은 12.5% 감소한 97억불을 기록. '15년 상반기 중국 섬유산업 투자는 전년동기대비 15.4% 증가한 5,245억 위안을 기록했으며, 중국 동부 및 중부 지역에 대한 투자는 증가했으나, 서부지역 투자는 둔화된 것으로 나타남. 한편, 중국방직공업연합회는 향후 중국 섬유류 수출 감소폭이 축소되어 전년 실적과 비슷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온라인 의류 판매 성장에 힘입어 의류 내수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

### ☞ 중국 기업, 원가절감 위해 미국으로 공장 이전

- 중국의 급등하는 임금과 물류비, TPP 및 관세혜택 영향 등으로 중국기업의 미국진출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보스턴컨설팅그룹에 따르면, '14년 중국의 시간당 임금은 12.5불로 '04년 대비 3배 증가했으나, '14년 미국의 시간당 임금은 22.3불로 '04년 대비 30% 증가하는데 그침. 아울러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도 중국기업의 미국진출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중국 커얼그룹은 사우스캐롤라이나주에 2억1,800만불을 투자해 면 가공공장을 설립, 현지에서 제품을 생산해 아시아 각지로 수출하고 있음. 중국의 JN Fiber사 또한 사우스캐롤라이나주에 4,500만불을 투자하는 등 중국기업의 미국 진출이 늘어나고 있음

### ☞ 중국, 위안화 평가절하에 따른 섬유·의류산업 영향

- 중국인민은행은 중국 수출 및 경기부양을 위해 8월 11일 위안화 절하를 발표, 13일에는 위안화/달러 환율이 6.4010위안에 달함. 중국해관통계에 따르면, '15년 7월 중국 섬유·의류 수출은 전년동기대비 10.2% 감소한 272.5억불, 1월~7월 중국 섬유·의류 수출누계는 4.4% 감소한 1,556.3억불에 그침. 한편, CCF컨설팅은 중국이 위안화를 지속적으로 절하할 경우, 바이어들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가격 인하 압력이 늘어날 것이며, 이에 따라 중국 섬유·의류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아울러, 위안화 평가절하가 한국, 일본을 비롯한 세계 국가별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 한편, 국제통화기금(IMF)은 중국의 금번 일회적 조정을 중국 위안화가 국제 기축통화로 편입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보고 환영의 입장을 나타냄

☞ **인도 섬유산업, 국내외 수요 증가와 정부 정책지원으로 급성장**

- 인도 산업부에 따르면, 인도 섬유산업은 전체 GDP의 4%, 전체 수출의 13%를 차지하고 있으며, 시장 규모는 1,080억불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이는 인도에서 농업 다음으로 가장 큰 규모로, 업계 종사자 수는 약 3,500만명으로 추산됨. 컨설팅 업체 Wazir와 PCI가 공동으로 실시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향후 10년 내로 인도 섬유 시장규모는 현재 1,080억불의 5배에 달하는 5,000억불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 아울러 인도 섬유부는 '16/'17년까지 내수가 1,000억불, 수출이 650억불에 달할 것으로 전망. 제12차 5개년 경제개발 계획에서 정부는 섬유 부문의 예산을 이전보다 7,000만불 증가한 42.5억불로 책정함. 한편, 인도 섬유부 장관은 국내외 수요 증대와 정부의 지원 및 투자가 지속되고 있어 '15/'16년 섬유 수출 목표를 전년대비 14% 증가한 475억불로 책정

◆ **주요 통계발표 자료**

☞ **'15년 상반기 해외직접투자 동향**

-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에 따르면, '15년 상반기 우리나라 해외직접투자(투자기준)는 전년동기 대비 19.1% 감소한 109억9천만불로, 이 가운데 제조업종의 투자는 7.3% 감소한 35억3천만불을 기록 (전체 해외투자의 32.1% 점유). 섬유산업의 '15년 상반기 해외투자는 신규법인수 54개사, 투자금액 2억4천만불로 나타남. 국가별로는 스위스, 베트남, 인니, 미국, 미얀마 순으로 투자가 이루어짐. 한편, '15년 상반기까지 누계 섬유산업 해외투자는 5,548개사, 75억5천만불로 전체 제조업 해외투자 법인수의 19.0%, 투자금액의 7.4%를 점유

< '15년 상반기 섬유산업 해외투자 현황 (단위 : 건, 개, 천불) >

구 분	총계	스위스	베트남	인니	미국	미얀마	중국	기타
신고건수	219	1	107	10	13	15	17	56
신규법인수	54	-	29	4	4	4	5	8
신고금액	285,376	100,000	119,862	7,878	14,209	12,887	6,718	23,823
투자금액	242,773	100,000	79,893	26,108	11,925	6,202	5,866	12,780

☞ **'14년 하반기 중소제조업 설비투자 전망 조사 결과**

- IBK기업은행 경제연구소의 '중소제조업 설비투자 전망조사'(조사기간 : 7/1~7/15, 3,169개사 대상) 결과 올해 하반기 설비투자 실시예정 업체비율은 20.8%로 상반기(24.3%) 대비 3.5%p 감소할 전망. 이는 경기부진으로 인한 생산감소와 가동률 하락 등으로 투자유인이 감소했고, 하반기에도 국내 수요가 불투명하다고 판단한 중소기업들이 설비투자를 주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 업종별로는 의약품(46.2%), 음료(33.3%), 화학제품(32.1%) 등의 설비투자 실시예정 업체비율이 높게 나타난 가운데, 섬유산업의 하반기 설비투자 실시예정 업체 비율은 섬유제품이 19.4%, 의복·모피가 12.4%로 상반기 보다 각각 1.3%p, 0.5%p 감소할 것으로 조사됨

◆ **원자재 가격 동향**

☞ 원면가격은 미국 농무부(USDA)의 당초 예상치보다 낮은 원면 생산 전망 발표로 반등세를 보이면서 전주대비 7.0% 상승함. USDA 월간 보고서에 따르면, '15-'16시즌 세계 원면 생산은 경작면적 축소 등으로 '14-'15시즌보다 8.4% 감소한 2,373만톤에 그칠 것으로 전망. 화섬원료 가격은 유가 하락세와 위안화 평가 절하에 따른 구매심리 악화 등으로 소폭 하락함. 시장에서는 향후 수요 반등이 기대되는 9월까지의 가격 약세를 예상

품 목(단위)	날짜	조건	가격	1주전 대비	4주전 대비	3개월전 대비
원면(¢/LB)	8/14	미국('15년 10월 인도분)	67.16	7.0%	2.0%	△1.4%
PTA(\$/MT)		CIF China	640	△0.8%	△1.5%	△12.9%
MEG(\$/MT)		(90 days credit term)	778	△1.5%	△11.3%	△17.2%

---

섬유패션산업 동향

**Biweekly Tex+Fa Brief**

- 발행처 : 한국섬유산업연합회 산업조사팀
  - 주소 : 서울 강남구 대치2동 944-31 섬유센터 16층
  - 홈페이지 : [www.kofoti.or.kr](http://www.kofoti.or.kr)
  - 전화 : 02-528-4024 / 팩스 : 02-528-4070
-